



올해는 바른말 캠페인에 앞장서겠다 2013년 한국어나운서클럽 정기총회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회에는 지역 회원들과 현직 아나운서들이 대거 참석하고 첫선을 보인 회원들도 많았다.

3월 5일 서울 여의도 열빈에 43명 참석

(사)한국어나운서클럽 정기총회가 3월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중식당 '열빈'에서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창간 2주년과 새 봄을 축하하는 자리로 펼쳐진 이날 모임에서 김동건 회장은 원로부터 현역까지, 또 멀리서까지 와준 참석 회원들 덕분에 더 활기찬 해가 될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동건 회장 방송인생 50년 축하하며 견배 가수 김정호 부친 김정빈, 원주에 정착한 김주혜,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임희숙 회원 등 첫 참석 광주·대구·대전·원주 등서 지역 회원 대거 올라와 다음 모임은 6월 5일(수) 오후 6시 30분 열빈

이어 1963년 동아방송(DBS) 입사 이래 줄곧 마 이크 앞에 선 김동건 회장의 방송인생 50년을 축하하며 아나운서직종과 클럽의 발전을 기원한 진영우 고문의 견배사, 정홍숙(전 MBC) 회원의 축 시 낭송, 새로 중책을 맡은 KBS 아나운서실 김홍수 실장과 MBC 신동진 한국어나운서연합회장의 소감, 참석자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인기 가수 김정호 씨의 부친인 김정빈(전 KBS 광주) 회원, 강원도 원주에서 행사 사회와 시, 서예 등을 즐기며 지낸다는 김주혜(전 KBS

회원, 그리고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임희숙(전 KBS) 회원 등 첫 참석자와 춘추추동 방송 블로그 운영자인 방우희 이장춘 이사가 함께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밖에 대구 이후재, 대전 이종태, 원주 김운한 회원 등 지역 거주 회원들의 열의로 꽃샘 추위를 무색하게 한 정기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이하 명단 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성곤, 권혁화, 김규홍, 김동건, 김명숙, 김상준, 김성은, 김운한, 김재원, 김정빈, 김주혜, 김홍수, 민병연, 민창기, 방현주, 박민정, 박종세, 성경환, 성기영, 성선경, 신동진, 안운숙, 양진수, 원종배, 유지철, 윤영중, 이병혜, 이성배, 이장춘, 이종태, 이해옥, 이후재, 임국희, 임희숙, 전영우, 전찬희, 정경래, 정연호, 정홍숙, 채영신, 한상권, 황량, 황인우

한편 (사)한국어나운서클럽은 2월 말 서울전파 관리소에 업무 현황에 대한 비영리법인 정기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바른말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달에 한번씩 생활 속에서 언어오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채집,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꾸준히 진행하다보면 바른말 고운 말이 메아리 되어 돌아오리라 믿으며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다음 정례 모임은 오는 6월 5일(수) 오후 6시 30분에 '열빈'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나운서클럽 다문화 초등생용 한국어교육과정(KSL) 교재 제작 참여

박민정 사무총장 황인우 편집장, 정확한 발음 녹음으로 완성도 높여

(사)한국어나운서클럽이 다문화 초등학생용 한국어교육과정(KSL)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 박민정 사무총장과 황인우 편집장은 외국인 및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교육매체 개발 전문 셀코한국어교육연구소(대표 이수련)의 요청으로 1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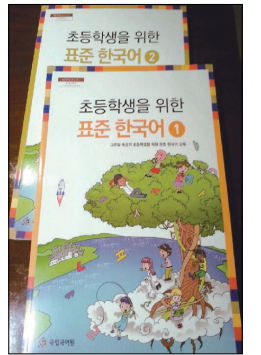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발행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다문화 초등학생 평가 진단도구로 사용 KLS 교재 토대로 EBS 방송도 제작 예정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주)제이미디어 어플리스 스튜디오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2권의 음성 자료를 정확한 발음으로 녹음해 완성도를 높였다.

서울교육대학교 원진숙 교수의 지휘로

12명의 연구원이 개발해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이 교재는 앞으로 다문화 초등학생을 위한 평가 진단도구로 사용되며 EBS를 통해 방송용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올 봄학기부터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로 배울 수 있도록 KSL을 정규과목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15대 한국어나운서연합회장 MBC 신동진 아나운서 취임



MBC 신동진 아나운서가 제15대 한국어나운서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신동진 아나운서는 2월 26일 열린 한국어나운서연합회장 이·취임식에서 SBS 손범규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1996년 입사 이래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신동진 회장은 작년 7월부터 MBC 사회공헌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속해서 아나운서저널을 매월 발행하고 아나운서 전문화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하며,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와 대한적십자사 유종근 총재를 연합회의 외부 고문으로 초청해 사회봉사활동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문화 교육과 사회봉사활동 활성화하겠다

각사 협회장으로 새 집행부 구성

KBS 유지철, SBS 박광범, OBS 홍원기, CBS 김용신, tbs 김병훈, febc 김성윤, PBC 김부궁

새 집행부는 신임 KBS 유지철, CBS 김용신 협회장과 유임자인 SBS 박광범, OBS 홍원기, tbs 김병훈, febc 김성윤, PBC 김부궁 협회장으로 꾸려졌다.

아나운서 출신 김성호 교수 '한국어나운서 통사' 발간

경성방송 개국부터 MBC TV 개국까지 총정리된 최초의 한국 아나운서 인명사전

최초의 한국 아나운서 인명사전이 나왔다. 아나운서 출신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김성호 교수가 2월 20일 (주)나남에서 '한국어나운서 통사'를 펴냈다.

700여 방송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이 책에는 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 시기부터 1969

년 MBC-TV 개국 시기까지 활약한 전체 아나운서들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1장 경성방송 시대, 제2장 KBS 단독 방송 시대, 제3장 국·민영방송시대로 나누고, 제4장은 '최초'를 키워드로 해 아나운서 30년의 업적을 정리했다.



LA에서 미주방송인협회장 이·취임식 제2회 우수방송인상 시상식 열려



▶김정수 신임 회장

제23대 미주방송인협회장에 MBC 엔지니어 출신으로 방송매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김정수 씨가 선출되었다.

1월 12일 저녁 방송인 70여 명과 신연성 총영사, 배무환 한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인식당 용수산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앞으로 현역 방송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한인방송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제2회 우수방송인상 시상식에서는 TV부문상에 SBS International 전영웅 보도국 취재 기자, LA 라디오서울 송봉후 앵커 겸 보도위원이 라디오부문상을 받았다.

(사)한국어나운서클럽은 '한국어나운서클럽

회보'를 미주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김홍수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미주 아나운서들의 소식을 전해준 정영호(전 KBS) 회원을 새롭게 클럽회보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제23대 회장에 MBC 엔지니어 출신 김정수 취임 제22대 김홍수 전 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미주 정영호(전 KBS) 회원 본보 편집위원 위촉 제2회 우수방송인상

TV 부문 상 - SBS International 전영웅 기자 라디오부문상 - LA 라디오서울 송봉후 앵커

1966년에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정 위원은 1974년 국제협력실에 근무하다 1976년 프로듀서로 전직, 1986년 미주한국방송(KTE) 총무부장, 1989년 본사 심의부장을 거쳐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수 신임 회장, 송봉후 아나운서, 남철우 미주기독교방송 대표, 진웅, 홍우창 전 회장, 민병국, 최은옥, 정영호 고문, 김미영, 김홍수 전 회장, 김봉구 명예회장, 김난향 아나운서, 김명우 고문, 장인숙, 이승상, 송현식 회원

2면 특집 김동건 회장 방송인생 50년

3면 초대석 통사 펴낸 김성호 교수

특집 사나운서 김동건 방송인생 50년

‘그를 지칭할 때 김동건, 아나운서 그리고 가요무대라고 합니다’



1939년 11월 25일 황해도 사리원 출신
1958년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1965년 연세대 교육심리학과 졸업
1963년 3월 동아방송(DBS) 아나운서
1964년 9월 동양텔레비전(TBC) 아나운서
1973년 3월~1993년 5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위원
1993년 국민훈장 목련장, 제4회 위암 방지연상
2009년 3월~현재 제8대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인기 아나운서로 50년,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가요무대 50회 녹화하면 1년이 훌쩍 가 버려요. 세월 참 빠르지요. 벌써 50년이러니 오래했지요. 저는 사실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평범한 아나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출연자의 이야기를 들어준 덕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춥고 배고픈 직업이라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3년만 해보고 그때 가서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겠습니다.”라

한국아나운서클럽의 사단법인화를 이끌며 그 위상을 높였고, 제8대 회장을 맡고 있는 지금도 후배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친구 같은 선배, 김동건 아나운서. 편안하고 품격 있는 진행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 아나운서인 그가 방송인생 50년을 맞았다. 여의도 KBS 별관에서 <가요무대> 녹화 전에 그를 만나 소감을 들어보았다.

어릴 적 꿈을 현실로 만든 거네요. 방송 이력을 직접 들려주세요.

1958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선배가 대학방송 최초로 무선 FM 단파를 사용해 ‘YBS’를 개국했습니다. 거기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아나운서의 일을 미리 경험해봤지요.

같은 해에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KBS에 지원서를 냈는데 덜컥 면접까지 갔습니다. 면접관이 나이를 묻더군요. 기말고사 기간에 친구가 KBS에 대신 지원서를 넣었는데, ‘군대를 다녀온 대졸자’란 지원 자격에 맞춰 제 이력을 거짓으로 썼던 거예요. 기지를 발휘해 “이력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떨어졌고, 그 후 1960년에 한 번 더 지원했지만 그 때도 대학 졸업이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1963년 3월 동아방송이 개국할 때 실장으로 가신 KBS 전영우 아나운서 권유로 졸업반 때 DBS 1기 아나운서가 됐지요. 제 목소리가 첫 방송을 탄 게 4월, ‘DBS’라는 콜사인입니다. 그리고 1964년 12월 동양TV가 개국할 때 박중세 실장님 제의로 TBC로 옮겨가 10년간 방송했고, 1973년 KBS가 공사로 발족할 때 TV본부 국장 대우 방송위원으로 일하다가 1993년 5월에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있기까지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늘 멘트 준비도 해놓았었지요.

그의 3대 브랜드 프로그램

20여 년 진행한 가요무대, 30여 년 진행한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생방송 이산가족찾기

어릴 때 라디오에 붙어 살며 아나운서 꿈 키워

아나운서 초창기엔 뉴스 원고 빌려 밤샘 연습 방송 반세기 동안 술한 프로그램 진행

좋은 진행자는 균형 있게 조율하는 사람

세계), <뉴스파노라마>, <이산가족찾기>, <11시에 만납시다>, <한국, 한국인>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맡았지요.

시청자들은 대개 제가 30년 넘게 사회를 봤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나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가요무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요무대>에 애착이 크시겠지요?

네, 가요무대가 원래는 지금과 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정확히 1985년 11월 3회 방송부터 제가 마이크를 잡아 2003년 6월 16일까지 18년간 832회를 진행했고요. 그러다 KBS가 2003년에 MC 세대 교체를 추진하면서 후배 전인석 아나운서가 맡았고 <가요무대> 25주년이 되던 해인 2010년, 7년 만에 <가요무대>에 돌아오게 됐지요. 시청자들이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작할 때 주 시청 층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지요. 그 시절 사랑받던 노래는 지금도 많

친한 친구에게 유언을 전하고, 혹시나 나중에 어머니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할까 걱정돼 TV가 고장 나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는 TV를 없애고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는 건 ‘권력’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일단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자는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프로그램 안에 녹아들어야 해요. 출연자와 청중 사이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 외적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따로 할 게 있나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사랑을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 아나운서들을 위해 도움 일이 있다면 발 벗고 나서야지요.

아나운서는 부나 권력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후배들이 마음 놓고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하는 건데,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50년 동안 아나운서로 살아가면서 한 달 이상 쉴 적이 없습니다. 조만간 방송 활동을 마무리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영국의 표준어는 BBC이고, 일본의 표준어는 NHK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아나운서는 그야말로 아나운서답게 표준어를 지키는 언론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 사전에 ‘표준어란 KBS 아나운서가 쓰는 말’이라고 표기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1973년 TBC 웃으며 노래하며 1975년 TBC 토요일 오후 1976년 KBS 우리들 세계 1980년 KBS 시민법정 1982년 KBS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1983년 신은경 아나운서(오른쪽)와 진행한 KBS 이산가족 찾기, 연출자 안국정 PD와 함께

고 했는데, 어느 새 5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인정받으면서 오래 할 수 있었으니 그저 감사한 일이지요.

어떻게 ‘아나운서’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아주 좋은 전축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코드 판 밑에 라디오가 달려 있어서 스위치를 돌리면 라디오가 나왔는데, 그 때 아나운서 목소리가 참 좋아서 라디오를 자주 듣게 됐고, 커서 아나운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중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신문 기사를 아나운서처럼 낭독하곤 했는데, 친구들이 진짜 아나운서 같이라며 모여들곤 했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항상 당시 정동에 있던 KBS 방송국에 놀러갔지요. 공개홀이 아주 작았는데 거기서 장기범 선배가 공개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자주 갔는지 수위 아저씨가 묻지도 않고 들여보내줄 정도였습니다.

많은 아나운서들이 기본적으로 ‘숙련’되기 위해서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초창기에는 뉴스 진행을 잘 하고 싶어서 그날 방송된 모든 뉴스 원고를 집으로 빌려와서 연습을 했어요. 녹음기에 다 녹음하면 짧게 걸려야 2시간이죠. 그리고 나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 모니터하고, 다음날 아침에 빌려온 원고를 반납하고 저녁에 또 원고를 받아다가 연습하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했어요. 그렇게 연습하며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하는 뉴스를 맡아 오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매일 방송하다 보면 집에 못 가기 일쑤였지요.

그 동안 맡았던 프로그램들을 다 기억하세요?

워낙 많아서 꼽기가 어렵지만, TBC에서 <퐁퐁이 박사>, <가요스테이지>, <스타와 한 때를>, <명랑백화점>, KBS에서는 <가족끼리 웃으며 노래하며>로 시작해 <우리들

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니까요. 감동적인 프로그램, 잊지 못할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요.

<이산가족찾기>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감동의 연속이었죠. 1939년에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난 저도 전쟁 중에 친형을 영영 못 보게 될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실형민의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지요. 바로 옆 동네 사는 형제가 30년을 넘게 모르고 살다가 만난 사례도 있었고요. 피난길에 미처 기차에 오르지 못한 아들을 찾기 위해 걸어서 먼 길을 되돌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던 사연까지, 그때 방송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또 1985년 9월 20일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 방문할 때 사회자로 북한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끝으로 회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후배 여러분께 참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사단법인 체제를 만들고, 신문을 발행하고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나운서들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아나운서여서 행복했고, 참으로 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를 사랑하는 마음, 선후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나운서클럽과 ‘창간 2주년을 맞은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 유혜진 객원기자 eternityjw@naver.com

초대석

"이제야 아나운서 빛 청산하고 진정한 방송인이 된 것 같다"

'한국 아나운서 통사' 펴낸 김성호 교수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카페 문을 열고 싱긋싱긋 걸어 들어오는 김성호 교수에게서는 당당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악수를 하며 나도 모르게 무슨 운동을 하시냐는 질문을 던졌을 정도였다. 매주 북한산을 오르고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일까. 아나운서부터 프로듀서, 원주방송국장, 개혁기획단장, KBS1 사장 역임 후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변신해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 한국소통학회장까지 수많은 직함을 두루 거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원로를 대상으로 하는 초대석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거듭 표명했다. 그러나 편집진의 의도는 '한국 아나운서 통사'의 저자인 그를 통해 작고한 분은 물론 한국방송사 韓國放送史를 장식한 아나운서들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 역사적인 사진 한 장 가슴 속에 넣어주세요
▶1934년 연말 특집방송을 마친 경성방송 우리말 담당 제2방송과 직원들 (뒷줄 가운데 김문경, 남정준, 아랫줄 오른쪽부터 이하윤, 최아지, 이석훈, 하건너 박충근, 이해구 아나운서)

먼저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최초의 한국 아나운서 역사서를 펴낸 소감과 동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 입사 때부터 기획했던 것이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나운서로 입문하였기에 자긍심과 더불어 보은報恩의 차원이랄까. 이제야 아나운서 빛을 청산하고 진정한 범방송인凡放送人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을 펴낸 후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에 힘이 납니다만, 누락된 분이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테니 그런 점은 용서를 청합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인물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고 사람을 기억하는데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인물을 기록하고 기리는 정신이 부족해요. 그런 문화를 배양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무엇보다 후학들에게 방송의 역사를 전수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컸습니다."

'한국 아나운서 통사'에는 '최초 탐구 아나운서 30인'이란 부제로 최초란 기록을 보유한 아나운서들도 시대 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최초의 공채 아나운서 마현경, 남파 아나운서 김영팔, 스포츠캐스터 박충근, 방송국장 이해구, 아나운서 소설가 이석훈, 보도부장 이계원, 농구 캐스터 이현, 올림픽 중계 캐스터 민재호, 방송관·야구 캐스터 윤길구, 방송학 교수 이덕근, 방송기자 문제안,〈스무고개〉사회자 윤용로, 국민장 의식 중계 캐스터 홍양보,〈뉴스영화〉해설자 이성수, TV방

송 아나운서 서명석, 정부 파견 미국의 소리(VOA) 아나운서 장기범, 스포츠 단체 이사 최승주, 해외 예술사절단 파견자 강익수, 공영방송 이사 강찬선, 민간방송 중역 임택근, KBS-TV 아나운서실장 황우겸, 방송 3사 아나운서실장 최계환, 여류방송인클럽 회장 강영숙, 화법 연구자·아나운서 1호 박사 전영우, 시인 아나운서 최세훈, TV 공채 아나운서 김봉구, 5·16 군사정변을 방송한 박종세, 최다

"아나운서는 인성이 참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합니다."

앞으로 기자, PD, 기술인 인물사전도 차례로 집필하고 방송90주년인 2017년에는 한국방송사를 출간할 계획 후학들에게 방송 역사 전수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1970년 입사 때부터 기획했던 아나운서 인명사전 출간

종목 스포츠 중계방송 아나운서 이광재, 민방 보도책임자 전용덕, 국제 TV세미나에서 의장이 된 김영호 등이다.

중학교 시절 남산 KBS에 견학을 왔다가 한눈에 반해 방송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그는 정부가 시행한 방송직 아나운서 공채 마지막 기수로 1970년 10월 입사했다. 무조건 지역구 발령이던 당시 여수, 남원, 대구 등지에서 근무하다 1980년 초 제3TV(교육방송), 교육라디오(FM) 개



▶1946년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삼일절 기념 서울 안 여학교 연합음악회' 중계방송을 준비 중인 HLKA 서울중앙방송 아나운서들
①윤용로 ②전인국 ③문제안 ④박인자 ⑤호기수 아나운서

국 준비요원으로 본사에 올라와 다방면을 섭렵하며 KBS에 서만 36년을 근무했다.

그 시작점인 아나운서 시절의 모습이 궁금하다 했더니

'아나운서로서는 실패했지만, 꿈을 이루었으니 방송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에게는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방송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가 더 적성에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 교수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방송의 주역은 아나운서였다고 역설했다. "1943년 아나운서로 입문, 해방



▶김성호 교수 70년 KBS 아나운서 입사, 80년 초 교육방송 개국준비요원으로 본사 근무, 94년 원주방송국장, 98년 KBS 개혁기획단장, 03년 KBS1 사장, 03년 광운대 교수, 10년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 10년 한국소통학회장
▶왼쪽은 글쓴이 이지연 KBS 아나운서

후 우리나라 최초로 보도편집 요강을 만들고 최초의 방송학 교수가 된 이덕근 선인先人은 선배 이해구 선생을 존경하여 '선배는 전통의 연속에서 산다. 잊혀질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세상이 바뀌어 다양한 사람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지만 늘 아나운서가 방송의 장자長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 속에서 후배들이 어떤 아나운서 정신을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방송의 윈도우(window)와도 같은 아나운서는 인성이 참 중요해요. 방송인의 사표師表 장기범 선생은 아나운서의 천재였는데, '사람이 된 사람이 방송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답니다. 또 세상과 시청자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면 큰 잘못입니다. 아울러 편을 나누기보다 '더불어, 서로,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는 인터뷰 도중 '겸손', '겸허'와 같은 단어들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아나운서는 시청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 대접받는 자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후배들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했다.

늘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이는 그의 계획이 궁금해졌다. "정년이 지나고도 객원교수로서 연구실을 제공받고 2개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정리하려 합니다. 앞으로 기자, 프로듀서, 기술인 인물사전도 차례로 집필하고, 방송 90주년이 되는 2017년에는 제대로 된 〈한국방송사〉를 출간할 생각이예요. 나중에는 고향인 충남 당진으로 돌아가 움막 같은 서재나 지어 방송 자료들을 보관하며 살까 구상 중입니다." 1947년생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넘치는 김성호 교수, 그의 3모작 아니 4모작 인생이 기대된다. 글/이지연(KBS 37기)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분당 모임

7년간 이어진 소박한 분당 모임 "분당 살지 않아도 누구나 환영하니 언제나 함께해요"



▶현 회원 7명,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평웅, 김규홍, 이계진, 김인권, 박종세, 황우겸, 맹관영

분당 모임은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 사는 아나운서 선후배 몇몇이 정자동의 한정식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나운서 중 가장 원로이신 황우겸 선배님을 비롯해 박종세, 김인권, 맹관영, 최평웅, 김규홍, 이계진 등이 오찬을 하면서,

현역시절의 얘기와 함께 아나운서 출신 동료들의 소식을 전하고 현역 아나운서들의 활동에 격려를 보내며 격일로 만나고 있다.

모임의 발단은 지난 2006년 여름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기초를 다진 황우겸 고문이 분당 인근에 거주하는 몇몇 후배들을 불러 식사나 함께하자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 김규홍, 송재익, 한선교, 최선규에 이어 박종세, 김인권, 맹관영, 최평웅, 이계진 아나운서가 합류했다. 정례화한 지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생략된 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선·후배간의 정이 그만큼 돈독하다는 의미이다.

황우겸 선배님의 우렁차고 기름진 음성은 출중한 리더십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정 다감하신 박종세 선배님은 만날 때마다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다. 따뜻한 미소

와 정이 넘치는 김인권 선배님은 이 모임에 올 땐 늘 행복하다고 자랑하신다. 클럽회보 제호작가인 맹관영 선배님의 호탕하고 구수한 말솜씨로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만남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직접 담근 매실주나 포도주를 들고 오시는 최평웅 선배님의 정성에 모두가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계진 전 의원의 재치와 유머는 웃음이 가득한 식사 자리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 동안 분당 모임에서는 선거 유세 지원, 출판기념회나 전시회 관람, 혼사와 병

문안 등 경조사에 참석하며 동지애를 나누어 왔다. 유명세가 있던 아나운서들의 모임이다 보니 만남의 자리에서는 주변 중·장년층의 시선이 모여져 인사도 받곤 하는데, 그럴 때면 역시 아나운서란 기분 좋은 특별한 직업임을 실감한다.

때때로 타 지역 후배들도 초대해 또 다른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는데, 그 동안 박찬숙, 박민정, 이정애, 이영혜, 박성희, 황인우, 김명숙 등도 참석한 바 있다. 앞으로도 총무에게 연락하면 누구나 언제나 환영하니 2013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간사는 본인이 맡고 있는데, 회원들이 꼼꼼히 잘 챙긴다고 칭찬하며 종신 총무라고 불러주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장기 집권을 해야만 할 것 같다. 글/김규홍(전 KBS) 부회장

방송가 소식

충·아·협, 충북아나운서협회 통해 돈독해지는 선후배 사이

충북지역 7개 공·민영방송 아나운서 모임
 충·아·협은 충북 아나운서 협회의 줄임말로, 청주KBS, 충주KBS, 청주MBC, 충주MBC, CJB청주방송, 청주CBS, HCN충북방송에서 활약하는 23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KBS 이진욱, MBC 최남식 주도로 2009년 출범
 친목 넘어 공부, 봉사모임으로 활동 폭 넓혀
 서점에서 '급 번개모임' 등 알찬 시간
 현역과 전직·퇴직자까지 함께하는 풍성한 모임

2008년 가을 KBS 이진욱, MBC 최남식 선배가 협회 결성을 추진해 2009년 출범했다. 현재 KBS 임태진 부장이 회장, HCN 김태중 총무 체제로 KBS 김윤혜, 김호성, 원순식, 최인희, 이해수, 이승현, MBC 이영락, 조혜선, 조상진, 홍지영, CJB 최지현, 안정은, 황수동, 연규옥, CBS 최영실, 복진규, HCN 송인혜, 그리고 기자로 전직한 CJB 김종기, 이윤영, 장원석과 이제는 퇴직하신 이진욱,

최남식 선배가 명예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이와 성별이 다양해 활기가 넘치는 충·아·협은 전직자나 퇴직자까지 함께하는 풍성한 모임을 지향한다. 초창기엔 '올해의 아나운서상'을 수여하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는데, 점차 공부나 봉사 등 내실을 꾀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래서 상·하반기 정기 모임 외에도 가끔 이색적인 주제를 내세운 이른바 '급 번개모임'도 이루어진다.

지난 가을엔 대형 서점에서 모여 책을 고른 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근처에서 점심을 했다. 책 취향도 공유하고 사고 싶었던 책을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주제로 의상을 갖추고 스튜디오에서 사진촬영을 했다. 김정과 빨강색 의상으로 통일감을 준 한 장의 사진은 한 장의 사진 이상의 추억을 선물해 주었다.

이렇듯 충·아·협은 단순한 친목 행사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주제를 갖고 만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국 옆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점심식



▶2010년도 '올해의 아나운서' 수상자인 KBS 청주 이진욱 아나운서 축하연에서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김윤혜, 원순식, 최남식, 조혜선(필자), 최지현, 복진규, 이진욱, 최인희, 김민주, 조상진, 김태중, 장원석

사 후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한다던지 지역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는 계획도 갖고 있다. 같은 직종에서 나누는 공감대 형성이 더 좋은 방송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는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아·협 식구들. 3월부터는 각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게 된다. 방송국 견학을 겸한 모임이라 그런지, 서로 어떤 방송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지 벌써부터 다음 모임이 기대된다.
 글/조혜선(청주 MBC) 아나운서



아나운서 실장 김홍수 아나운서부장 강성곤 한국어연구부장 성기영



1985년 공채 12기로 입사, 1TV '일요뉴스'와 1FM '동창이 밝았느냐'를 진행한 야구와 배구 중계 캐스터, 안동방송국장을 지낸 김홍수(사진) 아나운서가 작년 말 인사에서 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1984년에 입사한 11기 강성곤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부장, 1991년 18기로 입사한 성기영 아나운서가 한국어연구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중국 동포방송국과 남북 언어 이질화 극복 시도
 김보민, 한석준, 김승휘 아나운서가 12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의 동포방송국 CNR과 CRI를 방문, KBS '한민족 방송'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남북 언어 이질화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또 12월 14일에는 아나운서 세미나가 아

나운서 교육장에서 열려 추재만 영상제작팀장의 강의와 정은승 아나운서의 ABU 파견결산과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오는 4월 23일 KBS 한국어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KBS 한국어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4월 2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자문위원과 자료집 집필진 섭외 중이며, 분과별(학술, 출판, 행사, 홍보)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9시 뉴스 이현주 앵커 선관위 공명선거 홍보대사 활동

이현주 아나운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홍보대사로서 영상제작물 등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나운서 지망 대학생 파트별 멘토링 38기 전속 성우 대상 기본 연수 참여



▶변우영 아나운서가 지난 1월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KBS 대학생 겨울 방송캠프에서 강의하고 있다.

아나운서실은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아나운서 지망생 24명을 대상으로 파트별 멘토링을 실시했다. 또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KBS 대학생 겨울 방송캠프'에는 변우영 아나운서 등 11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한편 유애리 아나운서는 1월 8일 전속 성우 38기 12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발음, 발성 및 우리말에 대한 이해 등을 강의했다.

신동호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국장 임명



1992년에 입사, 2001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신동호 아나운서가 2월 8일 아나운서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신 국장과 동기로 2011 아나운서 대상 수상자인 이재용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1부장, 1994년에 입사 후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은 하지는 아나운서가 2부장에 임명되었다.

2013년도 아나운서 공채에 3,600명 지원

2013년도 신입아나운서 공개채용에 남자 1007명, 여자 2642명 등 총 3649명이 지원했다.

MBC는 1차 실무면접 및 인성검사, 2차 역량면접 및 직무능력 테스트, 3차 최종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kobaco
www.kobaco.co.kr

더 큰 세상을 보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광고산업을 선도해온 공영미디어랩 코바코는
선의를 경쟁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광고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광고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글로벌 공영미디어랩이 되는 순간을 꿈꾸며,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정일 아나운서 부장 승진



작년 말 김정일 아나운서가 부장으로 승진했다. 1988년 CBS에서 입문해 1993년 개국 시 SBS로 이적한 김 부장은 현재 러브FM '김정일의 생생가요', TV '모닝와이드'를 맡고 있다. 한편 2012년 11월 1일자로 인턴으로 입사한 조정식, 장예원 아나운서가 3월 1일자로 정식 사원 발령을 받았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 박은경 아나운서 2012 SBS 연예대상 아나운서상 수상



2000년 입사, 스포츠뉴스로 주목받은 박은경 아나운서가 12월 30일 서울 삼남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2 SBS 연예대상에서 아나운서상을 수상했다.



올 첫 번째 작은 음악회, 2월에 파주 야당리서 열려

경기도 파주 야당리 맑은연못 성당에서 성전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2월 16일 저녁 7시부터 김슬애 아나운서와 성우 윤복성 씨가 진행을 맡아 본당

공연 팀과 생활성이 그룹 'SmpliCity'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작은 음악회는 2월 공개방송을 시작으로 올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주, 평창 스페셜올림픽 독일 선수단 환영식과 공개방송 음악회 사회

평화방송이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독일 선수단 환영식과 환영 음악회를 마련했다.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개최된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은 111개국에서 3300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정부 차원에서 각 선수단과 방송사를 연계, 가톨릭사회복지회가 독일 선수단의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맡음에 따라 평화방송이 독일 선수단과 관계자 100여 명에게 노래, 전통 악기 연주, 부채춤 공연 등으로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 1월 26일 오후 5시 가톨릭대학교 성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환영식에 이어 1월 28일 오후 8시 환영 음악회로 펼쳐진 공개방송은 12년째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김현주(사진) 아나운서가 맡았다.



이상희 아나운서, 상금을 OBS 아나운서팀 이름으로 성공회살림터에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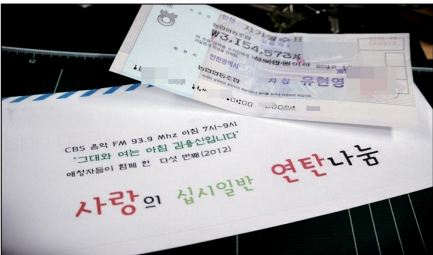


2012아나운서대회 아나운서클럽상 수상자로 사내 공로상도 받아 상복이 넘쳤던 이상희 아나운서가 공로상 상금 전액을 OBS 아나운서팀의 이름으로 대한성공회살림터에 기부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9동에 위치한 대한성공회살림터는 갑자기 경제 사정이 힘들어진 위기가족을 돌보는 곳으로 평소 기부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이라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신미정 아나운서가 새해 첫날 횡단보도에서 있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덮치는 바람에 팔과 다리를 다쳐 전치 3개월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다.



음악FM <그대와 여는 아침> 청취자 모임, 다섯 번째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벌여



김용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그대와 여는 아침>은 매일 아침 7시. CBS 음악FM에

서 친근하게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이다. '그대와 여는 아침' 청취자들도 방송과 함께하며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다. 애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의 활동. 지난 겨울 다섯 번째 연탄 나눔 행사가 이루어졌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모으고 직접 연탄 배달까지 한 훈훈한 사람들이 세상 한쪽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1월 성도재일 특집방송에 이어, 3월 불자정진주간에 특별편성 4월에 남산걷기대회, 5월 부처님오신날 맞아 '붓다-일곱 걸음의 꽃' 공연



불교계의 큰 명절인 '성도재일'을 맞아 1월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전국불자 철야정진과 함께하는 성도재일 특집 방송이 있었다. 또 3월 19일 '출가재일'부터 26일 '열반재일'까지 이어지는 <불자정진주

간> 특별편성물로 불교계 4대 명절 중 3개 기념일을 2013년 1분기에 마무리하고, '부처님오신날'까지 크고 작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1세기 국민적 관심사인 '힐링과 화합'을 위한 <2013 불교방송 치유(治癒)의 봄 남산걷기대회>가 4월 28일 열린다. 그리고 최대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현대무용극 <붓다-일곱 걸음의 꽃>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아나운서 11명 전원 참여, 설날 89시간 연속 교통 특별생방송 실시

지난 설 명절 기간에 89시간 연속 교통 특별생방송을 실시했다. 2월 8일 낮 12시부터 12일 새벽 5시까지, 나선홍, 송정애, 황원찬, 최지은, 김두희 등 아나운서 11명 전원이 참여해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배치된 방송통신원과 아홉 군데 포스트의 리포터와 함께 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성해 실시간 전달했다.



2013년부터 tbs 사보, 주간 온라인 뉴스레터로 발간

tbs 사보를 기존 종이 인쇄물에서 인터넷 뉴스레터 형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연 4회 발행에서 주 1회 발간하게 될 뉴스레터에

는 프로그램 정보, tbs 단독 기획 기사, 우리말 고운말, 방송 이슈 및 tbs소식,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교통 정보 등이 담기게 된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찬양콘서트 성금, 강원도 영월 3남매에게 전달



봄맞이, 새 학기를 맞아 소년소녀가장돕기 위한 공개방송 '아름다운 만남 찬양 콘서트'가 2월 22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열림교회(담임 이인선목사)에서 펼쳐졌다.

극동방송이 '상심한 자를 위로하라'란 주제로 홀사모, 김형진 선교사, 여성사역자 십터 베다니집 돕기에 이어 네 번째로 주최한 여성사역자 재능기부 콘서트이다. 이날이 정립, 송정미, 장미자, 유선숙, 남궁송옥 신현진, 김승희, 이시은, 조수아, 세미한소리 등 30여 여성 찬양사역자들이 38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 모아진 성금 전액은 강원도 영월에 사는 이윤희(고3), 이태현(중2), 이진경(초4) 남매에게 전달되었다.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편집자 주 :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칼럼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전영우 고문의 기고로 첫 장을 엽니다. 전 고문은 지금도 강단에 서며 최근 '로마 키케로(Cicero)의 오라토(Orator)-담론, 로마의 법정 스피치'를 탈고한 우리말 발음과 화법의 권위자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소리'와 '말뜻'

전영우(전 KBS-DBS-KBS) 고문, 수원대 명예교수



시니피앙(signifiant)-말소리가 정확해야 시니피에(signifi)-말뜻이 정확히 소통된다. 일반적으로 언어음소리를 낼 때 그것을 발음이라고 한다.

자음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kat] cut /u/, [kɑm] come /o/, [daz] does /oe/ 이처럼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있다. 소리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라 하더라도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로마자는 표음문자이지만 영어의 정서법은 반드시 자모가 정확하게 음에 대응하지 않는다.

발음기호는 이 같은 괴리를 없애고 단음 單音과 이를 표기하는 기호 사이에 정연한 1대1의 대응관계를 성립시키려 창안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음성기호 IPA이다. 이 때 우리는 일자일음一字一音, 일음일자一音一字를 내세우는 표음문자의 모순에 직면한다. 언어음을 옮겨 쓰는 구실을 하는 것이 표음문자이지만 언어는 변천하기 때문에 원래의 발음도 아니려니와 또 반드시 발음대로 적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핵심적인 발음 문제이다.

graduate[grædzueit] [é]·[èi], graft[gra:ft] [a:], Graham[gréiəm] [éi]·[ə]

이 보기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모음 /a/가 5개 음성으로 발음된다. 반대로 발음은 같지만 표기가 같지 않은 경우도 있다.

[kat] cut /u/, [kɑm] come /o/, [daz] does /oe/ 등이다.

회원 동정

백범기념관에서 '저자와의 만남' 행사 열어

**정경수(전 MBC)**

3월 5일 오후 3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으로서 '방송 30년, 시민단체 20년' 동안의 소중한 만남 '출판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원책 변호사, 이형균 기자클럽 회장, 민윤식 전 잡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2월 광운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 취득

**이영혜(전 TBC-KBS-SBS)**

비언어의 상호 동기화 연구로 2월 20일 광운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민대 정치대학원과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1977년 TBC에 입사한 이 회원은 방송통폐합으로 KBS에서 근무하다 1985년에 퇴직했으며 1991년 SBS 개국을 계기로 방송을 다시 시작해 1995년까지 근무했다.

뉴욕에서 시낭송회 열고 마지막 공주 이해경 여사 면담

**이후재(전 KBS)**

작년 12월 8일 저녁 뉴욕 플래싱 '금강산' 대 연회장에서 시집 '거북바위가 묻는다' 출판 기념과 함께 자작시를 낭송했다.

이어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는 고종황제 손녀 이해경(84, 사진 오른쪽) 여사와 인터뷰를 위해 면담하고, 컬럼비아대학 한국어과 도서관에 시집을 기증했다.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활약 중

**이정옥(전 TBC-KBS)**

작년 말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회원은 1979년에 TBC 아나운서로 입사, 방송 통폐합 후 1981년에 기자로 전직해 파리 특파원, 국제 협력 주간,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방송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분당에서 대형 카페 <압구정 볶는 커피> 운영

**임택근(전 KBS-MBC) 고문**

분당신 미금역 3번 출구 옆에 대형 커피집을 열었다.

작년 5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작은 카페 <모나>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2월 초순 분당프라자 3층에 <압구정 볶는 커피>(분당구 구미동 23-1, 031-719-6767)를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초빙교수로 임명

**윤영미(전 춘천 MBC-SBS)**

작년 말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초빙교수로 임명되었다.

1985년 춘천 MBC에서 시작한 윤 회원은 SBS 개국 방송을 담당한 아나운서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 후 프리랜서를 선언, 현재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윤영미 스피치 컴퍼니 대표로 강연 활동도 하고 있다.

재직 30주년 기념 트로트 2곡 담은 싱글 음반 내

**김충진(KBS 대구)**

방송국 재직 30주년을 기념해 박성훈 작곡 '차나 한 잔 하고 가소'와 '항구의 사나이' 등 트로트 2곡을 수록한 싱글 음반을 발매품으로 발매했다.

1981년 입사한 김 아나운서는 라디오 노래자랑 프로그램인 '오픈 스튜디오', '대구 아침마당' 등을 진행했고 현재 문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KBS 사우회 이사로 선임

**김규홍(전 KBS) 부회장**

2월 15일, 25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KBS 사우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1968년 아나운서로 입사, 2004년 사회교육국장으로 정년퇴임한 김 부회장은 1993년부터 열렬한 성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클럽 총무를 맡아 한국아나운서클럽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회보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방송언어 오·남용사례 알려주세요

매월 언론사에 바른말 캠페인 공문 보내기로

(사)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께 알립니다. 저희 클럽에서는 우리 사회의 언어 순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각 언론사에 메일로 바른말 캠페인 공문을 띄우려고 합니다. 전·현직 아나운서로서 경험을 살려 바른말 보급을 위한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중 방송언어 오·남용사례나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잘못된 언어활동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 해주시면 편집진의 회의를 거쳐 꾸준히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생물에 존칭을 하는 판매원들의 사례 때문에 피곤하다는 일반인의 지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예 1) 25,000원입니다(○) → 25,000원이십니다(×)
 - 예 2)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 성분이 있으십니다(×)
 - 예 3) 결국(× → 드디어(○)) 이상화 선수가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 이렇듯 언제 어디서 경험한 것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우리의 작은 노력이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저희 클럽 전화(02-784-5040), 문자(070-7501-3842), 메일(annaclub7@naver.com)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 알 림 |

고맙습니다

**민창기** 100만 원

3월 10일까지 입금 순

**김주혜** 50만 원**이후재** 30만 원**남선현** 100만 원**신은경** 50만 원

축하합니다

- 이진 (MBC)** 3월 10일 사업가와 혼인
- 위서현 (KBS)** 3월 3일 피부과 의사와 혼인
- 차미연 (MBC)** 2월 28일 영화학자와 혼인
- 조일수 (MBC)** 2월 15일 장녀 이지선 양 혼사
- 이자연 (OBS)** 1월 21일 득남
- 조수빈 (KBS)** 1월 18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 김양일 (전 TBC)** 3월 12일 별세
- 양성준 (전 KBS)** 2월 22일 모친상
- 김동환 (KBS 부산)** 2월 16일 부친상
- 김명숙 (전 KBS)** 1월 6일 시모상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진 퇴직 (MBC)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신설 차의과대 의료홍보영상학과 교수로 임용

**신은경(전 KBS)**

올해 신설한 차의과대학교(총장 이훈규)의 의료홍보영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1995년 영국 웨일스대 박사학위 취득 후 2003년부터 한세대 신문방송학과에 적을 두었던 신 회원은 홀어머니 간병을 위해 2004년 사직 후 작년에 강단에 복귀해 국민대 정치대 학원에서 강의해왔다.

(사)한국차인연합회 제12회 차인상 수상

**이계진(전 KBS-SBS) 부회장**

작년 12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사)한국차인연합회 주최 송년다담추세회에서 제12회 '2012 올해의 명예 차인상' 을 수상했다.

이 부회장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차인들로부터 차에 물이 들어 1970년대 후반부터 다기를 모으며 오랫동안 차를 마신 차인연합회 고문이다.

부자 아나운서, KBS 창사 특집 아침마당 노래자랑 준우승

**박용호(전 KBS), 태원(KBS) 부자**

아나운서 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박용호 회원이 3월 2일 공사창립 40주년 특집 토요 아침마당 '사랑해요 KBS' 에 아들인 박태원 아나운서, 며느리 염서은, 손녀 수연, 지안양과 함께 출연했다. 3대로 구성된 박 회원 가족은 기자, 기상캐스터, 전국노래자랑 출연자 등과 펼친 대결에서 전국노래자랑 팀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아나운서·쇼호스트학부 각각 학부장과 전임교수 맡아

김명숙, 김병찬(전 KBS)

KBS 13기 김명숙 아나운서가 1월 7일 4년제 학사학위 기관인 서울종합예술학교 아나운서·쇼호스트학부 학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KBS 17기 김병찬 아나운서는 전임교수로 임명되었다.

Zoom-in 이성민 KBS 아나운서

“말하기는 기술보다 인격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2012년 연말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7가지 설득력’ 과 ‘대통령의 설득법’ 등 2권 폭풍 집필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12년 겨울, KBS의 이성민 아나운서가 쓴 특별한 책 두 권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7가지 설득력(이담북스)〉과 〈대통령의 설득법(21세기북스)〉이 바로 그것. 이 책들은 작년 11월 30일과 12월 4일에 연이어 출간됐다.

두 책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면서도 ‘지도자와 화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성민 아나운서가 ‘이 시대 리더들의 말하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아나운서는 그동안 ‘6시 내고향’, ‘역사저널’, ‘여성공감’ 등을 진행했고, 대선 후보 토론회나 대통령 취임식 중계방송을 한 바 있다.

여의도에 찬바람이 가신 2월의 어느 날, KBS에서 이성민 아나운서를 만났다.

글/ 유혜진 객원기자 eternitjw@naver.com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작년에는 책을 쓰고, 공부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송을 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요. 새해 첫 날 한국어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국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 해왔던 KBS 라디오의 ‘라디오 24시’ 생방송까지 진행하느라 하루에 2번 출퇴근하고 있지만 곧 ‘라디오 24시’의 진행자가 바뀌면 팀장 업무에 전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 2권을 동시 발간할 수 있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1시에 퇴근을 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제가 썼던 논문을 편집해서 〈가나데혼 주신 구라의 비극성(한국학술정보)〉이란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11월에 나온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7가지 설득력〉은 2010년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인물 선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그 책을 마무리 짓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어서인지 〈대통령의 설득법〉은 2-3개월 안에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7가지 설득력〉의 부제는 ‘대한민국 대표 멘토 7인 심층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수만, 이견희, 반기문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외교, 국제 분야의 대표 주자 7인의 설득력을 다뤘고요.

〈대통령의 설득법〉도 ‘어떤 이의 마음도 단박에 얻어내는 20인의 킹스 스피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로널드 레이건, 버락 오바마, 노무현 등 전 세계의 리더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20가지 설득법을 분석한 책입니다.

화법과 아주 관련이 없는 책들은 아니지

만 말의 ‘기술’ 보다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리더 중심으로 책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자주 맡았고요. 방송을 하다보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을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과연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였어요.

그러다 보니 닳고 싶은 마음에 자료를 찾고 그 사람들의 능력은 무엇인지 분석도 해보게 되었지요. 그렇게 완성한 책들이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이 경험이 방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중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를 꼽는다면요?

누구 하나를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다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말을 잘하는 것과 지도자들이 설득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나운서는 표준을 지키면서 방송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대중의 마음과 신뢰를 동시에 얻어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에서 기술보다 중요한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막연히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지만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입사 전에 ‘작가’ 준비를 3년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KBS 공채 21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거든요.

밀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던 건데 그게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를 통해서 작가의 꿈까지 이루게 됐으니까요. 최근에는 책과 관련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학 전공자로서 ‘윌리엄 포그너의 미국주의’란 책을 펴내기도 했고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겸임교수로 영문학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저를 찾는 곳에서 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방송인을 원하는 곳에는 아나운서로, 또 작가로, 교육자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기왕 책을 쓰는 일을 시작했으니까 문필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조금은 생기네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회보를 통해 선배님과 동료, 후배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방송에서 각 분야 리더 만나며 지도자 화법에 관심 가져 영문학 박사, 일문학 박사과정 거쳐 대학서 영문학 강의 내 책은 세계 리더들의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20가지 설득법’을 분석한 것

것이 ‘인격’이라는 것을 이 책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영문학 박사학위와 일문학 박사과정을 밟은 것도 크게 도움이 됐는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평생 근무가 아닌 조근이나 야근을 지원해 아나운서로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아나운서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다리 역할’만 잘 해도 아나운서로서 성공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

평온한 풀밭



박정희 朴貞姬 (전 KBS) 동국대 영문과 졸업, ‘현대문학’으로 등단 1961년 KBS 아나운서로 시작해 월남 중군방송 아나운서, 여성중앙 기자를 거쳐 한양여자대학 교수를 지냄 1995년 서울여대에서 문학박사학위 취득 시집으로 내실, 문중지, 주둔지, 솔래의 편지, 꽃웃음 등을 냈으며 한국문학상, 동국문학상 등 수상

평온한 풀밭
걸을 보고 그 속을 어찌 알았으리

천호동 개천 변에서
몽촌토성이 나올 줄 어찌 알았으리
신안 앞 바다에서 고려 청자, 백자가 쏟아질 줄을

땅을 파면 역사가 나온다
뜨거운 화상을 입어 아직도 끊임없이 아픈
중동의 사막 그 심장을 누르면
로마가 나온다
여왕의 대리석 목욕탕이 나온다

우리 가슴팍 어디에도
묻혀있는 옛날이 있다

평온한 풀밭
걸 보고 그 속을 어찌 알리
영영 잊혀질뻔한 우리가 거기 있다



배경사진/ 이형균 李亨均 (전 MBC) 편집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197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 1980년에 영업부서로 전직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창사 멤버로 옮겨 국장을 지냄

THE FIRST COUNTRY CLUB IN KOREA

